



가톨릭마산

주님 성탄 대축일

2022년 12월 25일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홍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주님 성탄 대축일(2021년 태평동성당)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시

- 입 답 송**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제1독서** 이사 9,1-6
- 화 답 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제2독서** 티토 2,11-14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 복 음** 루카 2,1-14
- 영성체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시

- 입 답 송**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제1독서** 이사 52,7-10
- 화 답 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제2독서** 히브 1,1-6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 복 음** 요한 1,1-18 또는 1,1-5.9-14
-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다.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루카 2,10)

교우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올해 많이 힘드셨지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금년에 겪었던 슬한 사건 속에는 그분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그분의 개입은 분명 있었습니다.

오시는 아기 예수님 앞에서 아팠던 사건과 쓰라렸던 만남 속에 숨어 있는 그분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삶의 밝은 쪽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실패도 은총입니다. 상처도 은총의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을 쏟았던 것들이 좌절로 바뀌었다면 아기 예수님께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사랑했던 이들의 시선이 차갑게만 느껴진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기 예수님 앞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새로운 시간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2022년은 조용히 보내고 2023년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출발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 힘들었던 부분부터 새 출발을 결심한다면 구세주 예수님께서 필요한 에너지를 은총으로 주실 것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탄생하셨을 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러 한다.'(루카 2,10) 천사의 외침이 우리 본당과 가정에도 울리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두려움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포기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목동들은 양떼를 돌보다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동료와 이웃들에게 천사가 되어 구세주 탄생의 복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외쳐야 합니다. 하느님은 벌주는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당신 아드님을 보내주신 따뜻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청합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기도해온 그 땅은 먼 곳이 아닙니다. 바로 내 몸입니다. 평생 같이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매일 만나는 관계 속의 이웃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감사와 기쁨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께 찬미를 드리며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지난날 우리도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많은 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삶의 에너지가 요구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분께 은총을 청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아기 예수님의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빕니다.

2022년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에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신은근

2023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 속에 우리 교구 부제 3명이 사제품을, 1명의 신학생이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 일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단

- **일시:** 2023년 1월 3일(화) 14:00
-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 **주례:**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사제품



이창범 라자로
첫미사 구암동성당
1월 4일(수) 19:30



김진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첫미사 문산성당
1월 6일(금) 19:00



장신영 요한 마리아 비안네
첫미사 옥봉동성당
1월 5일(목) 19:30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
월남동본당

부제품

캄보디아에서 온 소식

뽀이벳에서 피워올리는 희망의 불꽃

캄보디아는 전 인구의 40~50%가 1달러(천 원)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중에서도 태국과 국경이 맞닿은 뽀이벳은 상황이 더욱 열악한 작은 도시로 우리 교구가 2018년부터 아시아평화인권연대(대표:정귀순)와 연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위해 인도 수녀님 네 분이 여학생 기숙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지은 뽀이벳 최초의 <신나는 도서관>은 배기현 주교님의 특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서관은 독서지도와 더불어 예체능 교육도 실시하여 뽀이벳 어린이들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장학사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희망 가득한 미래를 꿈꾸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구의 오늘이 있기까지 국내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감사의 기억이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교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뽀이벳 어린이들과 수녀님, 활동가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며, 캄보디아에서 피워올리는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바람이 지나가니 폭풍우가 몰아치네~”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얼마 전 수도 공동체 형제들과 함께 연피정을 하던 중, 식사를 마치고 계단을 오르는데 어느 선배 수사님이 옆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가니, 폭풍우가 몰아치지~” 무슨 말씀인가 하고 수사님 얼굴을 쳐다보니, “안셀모 신부의 부산 분원 소임이 비바람처럼 힘들었을 텐데, 이제 새로 맡은 본원장 소임은 폭풍우처럼 더 힘들지”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에 뭔가 몽클한 것이 북받쳐 오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올 뻔했습니다. 그것은 위로받는 느낌, 이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형제들은 이미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수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님, 그럼 폭풍우 다음에는 무엇이 오나요?” 그 수사님은 툇툇한 웃음과 함께 “산 넘어 산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폭풍우 다음에는 ‘따뜻하고 시원한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산 넘어 산이라니!’ 하들도 무심하시지...

그런데 피정 중에 가만히 그 수사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힘든가?’ ‘지금 나의 삶은 폭풍우처럼 그렇게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볼 때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공동체와 수도 형제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각종 원고와 피정 지도, 강의, 면담, 대외적인 역할 등 하루하루가 분주한 날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일 수도원의 규칙에 따라 기도하고 일하는 공동체의 삶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고 고마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일이 많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예전에도 지금처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은 ‘하느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느님의 일을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은 성령께 맡겨 드리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일과가 끝나면 꼭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힘든 사건이나 사람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완벽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이 완전한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하게 다른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그 모든 시련은 더 큰 사랑으로 건너가기 위한 도구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집착인 것 같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포기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주님 십자가 앞에 머물면 주님의 영이 마음 안에 평화를 심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한편 저는 그 수사님의 “비바람이 지나가니 폭풍우가 몰아치지~”라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되어 주는 것, 상대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 주고 손을 잡아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마산교구 후보 연재를 마무리하며, 하느님의 위로와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많은 마산교구 교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던, 폭풍우가 닥쳐오고 산 넘어 산처럼 막막해 오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 낼 수 있고 그 어떤 시련도 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께욱 안아 주시며 “많이 힘들었제! 내 니 마음 다 안다”라고 어깨를 토닥토닥해 주시며 위로해 주심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든 마음, 억울한 마음, 서러운 마음 모두 다 주님께 맡겨 드리고 더 큰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묵묵히 말없이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마산교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 박재찬 신부님의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울한 성탄절 용서하소서

김시탁 스테파노 시인/ 가톨릭문인회

이 나라 청춘이 질식당한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되어가는 연말이다. 유가족들은 이 겨울 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눈에 넣고 오백 번을 굴려도 아프지 않을 새끼를 잃고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고통이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것과 같을까. 그들은 우리의 딸들이요 아들이며 친척이고 이웃이었다.

아빠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고 생일상을 차려주고 외출한 딸이었고 갓 제대한 군인이었다. 첫 등교로 가르칠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만나보지도 못한 예비 교사였으며 한 번도 부모 속을 태우지 않고 공부 잘한 외아들이었다. 그 꽃송이 속에는 아직 봉오리로 맺힌 고교생도 있었고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도 있었다.

자식이 오디션 출신 배우인 부모는 마술로라도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통곡을 했고 백발의 아버지는 너를 이리 허망하게 보낼 수 없다고 관을 잡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혼절했었다. 동시에 1억 번을 찢린 것 같다고 말도 잊지 못하던 외국인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도 가슴을 후벼 판다. 다리가 무너진 것도 비행기가 추락한 것도 배가 전복된 것도 아니었다. 태풍이나 홍수나 지진 등 천재지변도 아니었고 괴물 같은 코로나가 도진 것도 대형화재나 교통사고도 아니었다.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었다. 남의 나라 문화에 변질된 할리우드 테이에 피 끓는 청춘들이 이태원에 몰리면서 일어난 대형 참사였다. 이 나라 치안은 미리 사실을 감지하고 파악했음에도 대책에 부실했고 사고가 나기 전 112에 수십 번의 신고를 했음에도 조치에도 미흡했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인재였다. 그 참사를 지금도 정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위정자들은 또 무엇인가. 할 수만 있다면 모조리 비행기에 태워 태평양에 쏟아버리고 싶다. 거기서도 혀는 동동 떠서 네 탓이오 네 탓이오를 거듭하겠지만 말이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지하의 김구 선생이 벌떡 일어나 앓을 일이다.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기에 그 원통함이 더하다.

이 나라의 치안 책임자들과 그들에게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맡긴 어리석은 국민들이 합작해서 저지른 총체적 살인이다. 그러니 무슨 염치로 꽃을 들고 그 곱디고운 청춘들 앞에 버젓이 설 수 있는가. 이제 또다시 세월호 리본 같은 거나 만들어 달고 다니면 면책되는가. 오 주님! 주님께서도 방관만 할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꽃샘추위에 봉오리인 채 떨어지는 목련도 억울한데 하물며 우리의 청춘들이 아닙니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잘못 데려왔다면 데려온 놈의 귀때기를 후려치시고 다시 보내 바로 잡으셨어야지요, 이 겨울이 아무리 혹독한들 유가족들의 볼에 흐르는 피눈물이 얼겠습니까.

가슴 중앙을 그대로 관통하며 출렁이는 강물 소리가 끊기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도 저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도움도 될 수 없는 무능함에 무릎을 꿇니다. 성탄절을 맞아도 채 마르지 않는 눈물 어찌하리까. 이 해가 지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우울한 성탄절 용서하소서.

제16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가톨릭문인회 정기총회



가톨릭문인회(담당: 이상록 요한 신부, 회장: 도경희 스텔라)는 12월 10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제16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가톨릭문학 24집 『생명의 나무』 출간기념 감사미사,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상록 신부의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시 부문 당선 여운숙 마리아, 수필 부문 당선 임나운 데레사, 동화 부문 당선 박정아 안젤라에게 교구장 서리 명의의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다. 이후 정기총회에서는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억할 선종 사제
현기호(시문) 신부
1985년 12월 30일

교구장 서리 동정

수품자 피정

일시: 12월 27일(화)~23년 1월 2일(월)
장소: 성형 영성의 집

송년미사

일시: 12월 30일(금) 17:30
장소: 창원파티마병원

교구/본당

수품자 피정

일시: 12월 27일(화)~23년 1월 2일(월)
장소: 성형 영성의 집

교구청 중무식

일시: 12월 30일(금)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난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

기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취업률 76.5% 충북권 최고수준
-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등록금 전액 감면
- 간호학과 등록금 100만 원 감면
-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원서접수: 12월 29일(목)~23년 1월 2일(월)
문의: 043-270-0100~0102

2023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12월 29일(목)~23년 1월 2일(월)
모집: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문의: 입학처 051-510-0702~8, 0804~9

2023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시: 23년 1월 6일(금)~8일(주일) 2박 3일
장소: 살레시오회관구관(서울)/ 참가비: 3만 원
대상: 고3(예정자)~30대 미혼남성
문의: 010-2042-8353(심재현 신부)

'2023년' 성모술술마를 치유대(會)피정 [무료]

성모님 품에서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일시: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주일 2박 3일
(23년 1월 13일~15일, 1월 27일~29일) (23년 2월 10일~12일, 2월 24일~26일) / 문의: 010-3209-3955

분더칼리지 캐나다 겨울영어캠프

기간: 12월~23년 2월 말
(주 단위 등록 및 연장 가능)
내용: 밴쿠버 명문사립 스쿨링/ 진로유학 멘토링
대상: 초4~고2
문의: 1577-5158/ 카톡: 분더에듀

일본 가교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일정: 매월 1회
장소: 도쿄,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지도: 송진욱 신부/ 비용: 99만 원부터
문의: 010-3645-902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재속 맨발 가르멜회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화원 모임

일시: 23년 1월~3월
장소: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화원
대상: 만 55세 이하, 세례 받은지 3년 경과, 견진성사를 받은 자, 과거 냉담 신자인 경우 성사 생활 3년 이상인 자
문의: 010-7275-4357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기도 모임



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담당: 정운호 베드로 신부) 기도 모임 및 미사를 12월 5일 호계성당에서 진행되었다. 미사는 정운호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으며, 이번 12월 기도 모임에서는 새로운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였다.

태평동본당 제3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최민수(마태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정성욱(세바스찬), 이명철(안드레아)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영순(사비나) / 총무: 정승욱(바오로)
재경분과위원장: 오임숙(리나)
교육분과위원장: 조영근(안토니오)
홍보분과위원장: 김정만(사무엘)
전례분과위원장: 염영숙(아가다)
구역분과위원장: 이희자(라파엘라)
사업분과위원장: 양경희(도나타)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구영섭(안젤로)
선교분과위원장: 김명희(골롬바)
청소년분과위원장: 반현철(토마스)
시설분과위원장: 정정화(파우스티노)
환경체육분과위원장: 김성욱(요셉)
가정사목분과위원장: 김경실(가말라)
연령회장: 차성욱(발토로메오)

교구청 직원 모집

청소년국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정규직 1명
접수: 2023년 1월 11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특이사항: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및 레크에 감각이 있는 사람 우대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 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6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2월 26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안의 삶(어울림의 삶)	안찬모 이나시오 신부(삼위일체 수도회)		010-5072-5612
진주지구	12월 26일(월) 19:30	신안동성당	성탄 이야기	김유경 베드로 신부(금산본당 주임)		010-3846-1980
청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와방선교회	1월 8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살레시오회	수시(문의바람)	창원 젊음의 집	심재현 치릴로 신부 010-2042-8353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원하는 날	원하는 곳에서	010-5155-5505	대상: 신나게 살아볼 훈남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베트남 성지순례 3박 5일-11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말기잼, 무화과잼, 꿀잼, 포토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 **국내·해외성지순례 모집**
2023년 1월 11일 이스라엘 9일 성지순례
■ **제주도·한국성지 167 성지순례 모집**
주중·주말 매주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12

김일순 켜마 갈가니(문산본당)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나 역시 나약한 인간이기에 미래를 알 수 없어 그날에 있었던 일이 나비효과가 되어 아들과 함께 공소 순례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성당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생 효주아네스가 아이들과 방학 동안 성지 순례를 다녔다며 순례 완주 메달을 자랑스레 보여주었다. 아이들과 성지 순례를 하며 방학도 알차게 보냈거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도 깊어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진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해주었다.

거기에 덩으로 성지 순례 완주 메달도 받으니 아이들이 무척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었다. 순간 부러운 생각이 들면서 반짝이는 금메달 같은 완주 메달에 욕심이 생겼다. ‘나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해봐야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때의 대화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몇 달이 지나 “언니, 올해는 성지 순례가 아니고 공소 순례래, 신청한다!”라며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로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아들 역시 방학 동안 엄마와 공소 순례를 해보겠냐는 물음에 “응”이라며 대답했고 사춘기 아들에게 두 마디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렇게 두 모자의 우당탕탕 공소 순례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은 가볍게 가장 가까운 ‘사봉공소’에서 미사를 드리고 신부님의 응원을 받으며 시작하였다. 남해공소 역시 관광지에 있어서인지 길도 잘 찾아가고 바다 구경과 함께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역시 공소 순례 하길 잘한 것 같아’라며 공소 순례의 취지나 의미는 나 몰라라 한 채 그저 나들이나 기분전환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순례를 거듭할수록 공소들이 외진 곳의 허름한 성전이 많았고, 제대로 된 십자가의 길조차 없이 프린트를 해서 붙여놓은 곳들도 있었다. 이런 곳에 공소를 세우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 분 두 분 모여 신앙촌을 이루고 기도하며,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어떤 힘이 이들을 이렇게 모이게 만들었을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을 지킨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들을 움직이게 한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은 과연 무엇일까? 그다지 깊은 신앙을 가지지도, 오랫동안 믿음을 키워오지도 않은 나로서는 그들의 가련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한 신앙심을 이해하기란 나 자신이 한참이나 부족하다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이분들의 신앙을 이해하려고 성 김대건 신부님의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무엇이 신부님을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만드는 것일까? 신부님의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산속 오두막에 공소를 만들고 삼삼오오 모여 공소예절을 올리던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름 없는 신앙 선조들의 힘이 하나하나 모여 거대한 산이 되고 파도가 되어 박해를 견뎌내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을 키울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신앙 선조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신앙을 지켜갔으리라. 새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신지 내 작은 머리로는 가늠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

이제 공소 순례가 절반이 채 남지 않았다. 시작할 때의 가벼웠던 마음은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아들과 함께 앞으로 가야 할 공소에서 그분들의 신앙심을 배우고 그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앞으로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



그리스도인은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자이며 그 기쁨을 누릴 주체이다

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수녀회

예수 성탄은 글자 그대로 아기 예수의 거룩한 탄생 경축을 뜻한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미사로 그리스도의 탄생축하미사이다. 부활이 교회 전례 시기에 가장 중심이며,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서 최대 축제는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다.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느님 인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감지하고,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과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상 구원의 새 역사가 성탄을 통해 시작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어 오시고 죄 많은 세상과 하느님의 화해가 성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며 경축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성탄을 축하한 흔적은 300년대 후에 나타났다고 한다. 주님 공현 대축일을 성탄절로 지냈던 동방교회에서는 200년대에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서방교회에서는 354년 12월 25일을 성탄 축일로 지낸 첫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3세기 신학자들은 태양의 상징인 그리스도를 유념해 예수는 태양이 새로이 솟아오르는 12월 25일에 태어났고, 당시 사람들은 이날 새로이 솟아나는 태양과 아기 예수의 지상 생활의 시작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복된 하느님의 섭리라 여겼다.

어린 시절 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쁘게 마냥 기다리며, 온 세상 반짝이는 불빛과 신나는 성탄 캐럴들이 모두 기쁘고 희망을 주는 힘으로 느꼈다. 그저 그 자체로 행복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난다. 그러나 지금에 내가 성탄을 맞는 마음가짐은 어릴 적과 사뭇 다르게 마냥 기쁨으로만 가득 채울 수 없다.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수도자로서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기쁨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깨어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도 안에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우리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이어야 한다. 그렇게 기다릴 때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로서나 교회 역사 속에 성탄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주는 성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자이면서도 그 기쁨을 누릴 주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주심을 믿고, 내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로 구원받은 하느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기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시작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이날에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길,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2년 12월 15일

▶ 총액: 778,716,964원

1. 사제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구성진(6차)	600,000	이상록(18차)	400,000
권창현(7차)	600,000	이슬기	4,800,000
김국진(1차)	3,600,000	이현우(4차)	800,000
김길상(7차)	4,800,000	장성근(2차)	4,800,000
김용	4,800,000	정연우(1차)	3,000,000
김정훈(시몬)	4,800,000	최문성(2차)	2,400,000
김형렬(18차)	600,000	허기원	2,000,000
박종선	4,800,000	익명	4,800,000
서정범(2차)	1,800,000	익명(4차)	1,000,000
서정술(6차)	600,000	익명(6차)	1,000,000
계		52,000,000	

2. 교구 내 기관, 시설, 단체

명칭	금액
교구 합창단	1,000,000
대신금속(주)	50,000,000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산청분원	300,000
(주)물타건설	10,000,000
여성협의회(교구신축기금마련 바자회)	46,729,200
재속프란치스코 경남지구형제회	5,200,000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000,000
한오회	10,000,000
계	133,229,200

3. 교구 내 개인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강옥희(중동)	6,000,000	하석현	200,000
박한웅	2,000,000	한행자	50,000
손미희	500,000	익명1	3,000,000
심광옥	1,000,000	익명2	30,000,000
안정애(남지)	60,000	익명(고현)	600,000
윤경화	100,000	익명(팔용동)	200,000
정옥주(신안동)	500,000	계	44,210,000

4. 개인(교구 외) 계 27,520,000원

Sr.김효숙, 강정옥(임상철), 김성명, 김정선, 남경애, 박경희, 박기선, 신승철, 양인순, 윤은숙, 이동구, 이정민, 이창근, 임춘봉, 장양숙, 정현호, 조화신, 한미숙, 황정철, 익명1

5. 해외

명칭	금액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천주교회 · 본당공동체: 14,844,200원	14,844,200
LA 성삼 한인천주교회 · 본당공동체: 30,062,200원	30,062,200
콜로라도 스프링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천주교회 · 개인: 1,608,617원 (이영옥, 최강용)	1,608,617
LA 성라파엘 한인 천주교회 · 개인: 1,000,000원 (고민성)	1,000,000
계	47,515,017

6. 본당

▶ 기간: 2022년 10월 1일~11월 30일

▶ 합계: 474,242,747원

■ 가음동 10,000,000원

- 완납: 곽태호(요셉), 김대현(하상바오로), 김성애(로사), 노혜진(올리아나), 문철순(루미나), 서강재(빈첸시오), 이근직(타테오), 이병옥(안드레아), 이석연(엘리사벳), 이영미(엘리사벳), 조재승(요한), 주성은(엘리아), 차경준(바오로)
- 분납: 권기욱(베네딕토), 김경화(로사), 김진혁(루도비코), 김해수(아타나시오), 박찬일(베드로), 백문조(베드로), 서광선(디오니시오), 선경열(안토니오), 양홍석(요한보스코), 엄현용(가브리엘), 유숙원(가브리엘), 이곡지(가타리나), 이성애(테레사), 이영은(베로니카), 이정미(프란체스카), 이필순(안나), 이해숙(로사), 정혜진(베로니카), 최홍규(시몬)

■ 가좌동 46,700,000원

- 완납: 강돌자(나탈리아), 강정길(스테파노), 강호중(알폰소), 고행미(테레사), 곽준식(아오스딩), 권인수(글라라), 김대식(빈첸시오), 김목남, 김문정(에스텔), 김봉임(도미니카), 김상욱(야고보), 김상철(스테파노), 김성원(프란치스코), 김영수(그레고리오), 김옥진(바실리오), 김익수(미카엘), 김점례(마리아), 김정희(아가다), 김종현, 김종호, 나영도(벨라도), 노영옥(테레사), 박미성(소화테레사), 박봉순(안젤라), 박영빈(가브리엘), 배정훈(프란치스코), 배종진(안드레아), 백금순(마리나), 백지형(카타리나), 손성호, 손정근(스테파노), 신병두(필립보), 신영민, 신용철(베드로), 신희준(시몬), 안계자(수산나), 안희영(요세피나), 우화숙(크리스티나), 유경화(아네스), 유봉원(바오로), 유현순(드보라), 윤대원(경환프란치스코), 이동훈(요셉), 이돌희(발바라), 이상열(마태오), 이상현(발렌티노), 이순선(아가다), 이신호, 이실광(안드레아), 이영민(안젤라), 이영수(라파엘), 이창희(막시모), 장경아(안나), 장왕진, 장재석(요한), 전원록(필립보), 정미임(요안나), 정미자(루시아), 정소황(실베리오), 정영관(시몬), 정재훈, 정화영(소피아), 조미자(실비아), 조민국(비오), 조병래, 조선미(젬마), 조수용(알베르토), 조재영, 조진국(마르코), 조현일, 주미자, 주혜영(카타리나), 지혜자(마리아), 최영란(라파엘라), 최옥란(리디아), 최정혜(소화테레사), 하직녀(글라라), 하현둘(올

리에타), 하효근(하상바오로), 한순자(아네스), 허종명(즈가리아), 홍인덕(베네딕토), 황갑순(루시아)

■ 거제 600,000원

■ 거창 6,293,334원

- 분납: 김규태(프란치스코), 김성대(암브로시오), 김양희(마리아고레피), 김왕출(미카엘), 김정태(마르코), 김현성(안토니오), 박동운(마태오), 박영희(루시아), 방종열(스테파노), 신감숙(마리아), 이정희(에밀리아나), 이천두(프란치스코), 장호승(베드로), 정영록(가브리엘), 정은진, 정지수(테오도로), 조현목(미카엘), 최상웅, 최준택(미카엘)

■ 경화동 4,020,000원

■ 고현 33,600,000원

- 완납: 김명선(세시리아), 김영길(프란치스코), 김영택(마르첼로), 노지현(젬마), 양재환(미카엘), 옥민호(미카엘), 이교문(안셀모), 이기자(베로니카), 임상자(글라라), 임재화(미카엘), 전병태(미카엘), 정창현(라파엘), 조재희(마리아)
- 분납: 강인화(안나), 강현숙(로사), 김명자(에스텔), 김민곤(베드로), 김범준(라파엘), 김상남(안셀모), 김성철(베네딕토), 문경식(루카), 박미정(엘리사벳), 박원영(바오로), 박자애(히야친타), 심석재(프란치스코), 이영섭(그레고리오), 이육례(크레센시아), 이혜진(아네스), 장순덕(요세피나), 장희자(벨라멧다), 전병태(미카엘), 정성윤(라파엘), 정영분(비비안나), 정희경(크리스티나), 정희수(안드레아), 채윤선(로사리아)
- 추가: 김가밀라(가밀라), 옥안나(안나), 유동환(가브리엘), 이창우(알비노)

■ 구암동 8,923,000원

- 완납: 강오병(미카엘), 구자룡(아타나시오), 김덕순(브리짓다), 김성란(루치아), 김진이(하상바오로), 마이클 프란치스코, 박미정(사라), 박한식(바오로), 임정섭(베드로), 전하성(안토니오), 황혜정(안젤라)
- 분납: 김경옥(테레사), 김동석(요아킴), 김돌란(막달레나), 김

옥선(크리스티나), 김점이(카타리나), 류관대(대건안드레아), 문창옥(갈디노), 박남조(프리실라), 안상덕(다니엘), 윤경순(안젤라), 황명란(로사리아), 황효숙(마리아)

■ 금산 4,260,000원

- 완납: 권동재(베네딕도), 김상호(요셉), 김영성(라파엘), 김정문(요한)
- 분납: 박성범(스테파노), 방호구(토마스), 배채웅(이냐시오), 성인기(베드로), 전상윤(요한), 태광훈(스테파노)

■ 남성동 1,073,000원

- 완납: 김우정(엘리사벳), 안철분(율리안나), 양승은(대건 안드레아)
- 분납: 김석립(마리아), 김정숙(테레사), 박점숙(스텔라), 신광순(발렌티노), 신소자(아가다), 정경숙(카타리나), 최호영(스테파노)

■ 대건 16,010,000원

- 완납: 강윤규(돈보스코), 류창오(유스티노), 최정윤(젬마), 익명 1명

■ 대방동 60,266,000원

- 완납: 강영(스테파노), 김정선(글라라), 김보영(엘리사벳), 김옥곤(안드레아), 김일규(비안네), 김형홍(베드로), 도철훈(라파엘), 박병오(요셉), 정병환(클레멘스), 정병희(유스티노), 최장운(요한)
- 분납: 김서현(안나), 김정오(가브리엘), 류상민(스테파노), 이부옥(빈첸시오), 이종해(요한), 이주형(요한), 전상조(요셉), 전석만(베드로), 천무환(세례자요한), 최봉수(베드로), 한미영(세실리아), 한호연(베드로), 허선화(베로니카)

■ 대산 3,641,307원

- 완납: 김병훈(가밀로), 김필규(필립보), 박길규(스테파노), 윤태숙(임파), 정점둘(세레나)
- 분납: 우인범(세영알렉시오), 정호대(베드로)
- 추가: 김용권(라우렌시오)

■ 덕산동 6,740,000원

- 분납: 곽순희(라파엘라), 김경숙(루치아), 김문강(루치아), 김범준(베네딕토), 김봄이(아네스), 김태연(헬레나), 김혜정(엘리사벳), 김희락(안젤로), 도경환(요셉), 박평제(마태오), 서주원(안드레아), 신숙(말가리다), 양

성우(프란치스코), 엄무자(알비나), 유영숙(모니카), 이정자(글로리아), 이영자(루치아), 이재홍(이냐시오), 이재환(마르첼로), 정순미(리디아), 조현찬(안드레아), 최성일(요한), 최영명(베드로), 최정남(루갈다), 하재훈, 황금숙(가타리나), 황분난(안나), 익명 2명

■ 망경동 8,780,266원

■ 명서동 21,103,000원

- 완납: 고성훈(베드로), 권정자(스테파니아), 권평근(베드로), 김경도(다니엘), 김소현(마리나), 김정호(시몬), 김춘희(파비올라), 김희경(안나), 박기식(레미지오), 박대희(프란치스코), 박수현(바오로), 백정숙(엠마), 송경희(가브리엘라), 윤상수, 이봉애(수산나), 임규섭(안드레아), 정수진(레지나), 조계인(다니엘), 조남익(라파엘), 채경수(리카르도), 최현미(헬레나), 허성열(올바노)
- 분납: 강봉수(요셉), 강영혜(율리아), 강지현(베로니카), 고민정(안젤라), 기봉현(안젤라), 김영희(막달레나), 김은선(아네스), 김태근(요한), 김필옥(로사리아), 김혜영(요셉피나), 박경규(안드레아), 박은지, 박재우(안젤로), 박진숙(마리아), 변희철(베네딕도), 서갑실, 서상우(요셉), 윤희성(요셉), 이말수(베드로), 이미란(세실리아), 이박미(레지나), 이영기(가브리엘), 이용근(안드레아), 이종란(로사리아), 이진호(비오5세), 장지수(요셉), 전운경(세실리아), 전진영(스텔라), 정선숙(체칠리아), 정지송(요한), 정지훈(요셉), 정진규(아브라함), 조미연(에메렌시아나), 조순동(엘리사벳), 주내(하상바오로), 최기은(살레시오), 최성국(요한보스코), 최옥희(루시아), 최은순(정혜엘리사벳), 최정애(카타리나), 최정환(알비노), 하연금(요셉피나), 허기영(다니엘)

■ 문산 4,170,000원

■ 반송 22,000,000원

- 완납: 강영태(스테파노), 강재원(첼레스티노), 강호연(스텔라), 권미경(아가다), 권창열(안토니오), 김덕희(율리아), 김문중((요한)미카엘), 김미숙(베아따), 김재곤(모세), 김형록(프란치스코), 남영희(아네스), 노재호(베드로), 박상금(루시아), 박성철(F.하비에르), 박성훈(펠릭스), 변재윤(바오로), 손태순(바오로), 신수철(세례자요한), 심종훈(바오로), 안승구(프란치스코), 안태환(바오로), 원정희(로사), 윤혜관(루치나), 윤호

영(루카), 이양임(릿다), 이영호(안토니오), 이정태(요셉), 정경자(소화데레사), 정미영(아눈시앗다), 정일화(세실리아), 정정순(M.도미니카), 정필수(라파엘), 정해운(치릴로), 조덕환(빈첸시오), 조돌수(마리안나), 조학래(바오로), 조현철(가브리엘), 진수원(글라라), 한정란(소화데레사), 황영자(요안나)

- **분납:** 강태선(마리아), 구분승(베드로), 김경태(요셉), 김국태(프란치스코), 김인숙(필로메나), 김준형(라파엘), 김한성(루치오), 남시완(시몬), 박영동(펠릭스), 박종은(라우렌시오), 박해정(임마누엘), 송정애(글라라), 윤여웅(요한), 이율하(다니엘), 이현재(니콜라오), 이효경(요한보스코), 임길섭(니콜라오), 차경섭(베드로), 하정화(아가다), 황경란(헬레나)

■ 봉곡 11,510,000원

- **완납:** 공윤식(베네딕도), 김대봉(베드로), 김병훈(라자로), 김진화(안나), 민강화(아셀라), 박성민(바오로), 성경남(바울라), 윤제진(다니엘), 이재준, 임형준(빅토리노), 조도수(요셉피나), 진영포(이냐시오), 최강훈, 최재영(프란치스코), 하병철(알렉산델)
- **분납:** 김슬기(젼마), 김영희(바울리나), 김정훈, 김진규, 박영옥(아네스), 이성민(수산나), 조이용(마티아)

■ 북신동 15,356,000원

- **완납:** 강민성(마틸다), 강병오(사라), 김재현(미카엘), 김현철(세례자요한), 박봉수(빈첸시오), 안쌍덕(소화데레사), 윤평순(프란치스코), 이상명(미카엘), 이정순(유스티나), 장정미(레지나), 최종현(바오로), 하영대(마카리오), 허승욱(고스마)
- **분납:** 강현주(로사), 김예준(미카엘), 김지영(로사), 한승지(카롤로)

■ 사림동 7,245,000원

- **완납:** 박기연(리나), 박영선(오틀리아), 박현호(안젤로), 배승환(프란치스코), 손도선(마리아), 이기범(가브리엘), 이현숙(사라), 최성길(비오)
- **분납:** 강순희(레지나), 강승우(베드로), 김순희(레지나), 김우섭(미카엘), 김진권(도미니코), 김희진(안나), 박무훈(요한보스코), 박민용(안토니오), 방승태(요한), 이승훈(베드로), 이정태(요한), 정순녀(엘리사벳), 최광선(로즈마리), 허윤석(라우렌시오)

■ 사천 5,505,000원

- **완납:** 강복원(비오), 강수정(아드리아나), 이미자(실비아), 이석원(베드로), 제정백(F.하비에르), 진차배(미카엘), 최영선(수산나)
- **분납:** 강기갑(로벨도), 권영선(마리나), 박중명(미카엘), 안숙연(마리아), 오남영(마리아), 이동규(요셉), 이한국(베드로), 제종원(프란치스코), 최전모(콜베)

■ 사파동 17,850,000원

- **완납:** 강명훈(다니엘), 권혁진, 김태숙(엘리사벳), 문종철(미카엘), 박경남(돈보스코), 박광자(데레사), 박근하(알리시아), 박영식(미카엘), 박지현(데레사), 변인숙(스텔라), 송광석(안토니오), 신종호(요셉), 원혜란(데레사), 이유향(안토니오), 전병태(베드로), 제충기(토마), 최성훈(시몬), 최우영, 황만호(아우구스티노)
- **분납:** 고순배(스콜라스티카), 김동연(요한금구), 김승언(알베르토), 김정환(파비아노), 김혜진(카타리나), 박근아(마리안나), 박상인(요셉), 박선옥(베드로), 박원기(바오로), 박종열(마티아), 박주호(요한), 박창욱, 박형근(마르코), 박희지(빈첸시오아바울), 배창호(마테오), 송재웅(미카엘), 우경규(요셉), 이동엽, 이명진(비르짓다), 정재익(도미니코), 천병석(라자로), 최도홍(요한), 최문대(글라라), 최성석(바오로), 최학련(베네딕도), 함미경(크리스티나)
- **추가:** 김은실(안젤라메리치), 김진협(바오로), 김채원(아네스), 유기재(안토니오), 이기완(이냐시오), 장희정(도미니카), 정병륜(아브라함), 최기숙(아가페)

■ 산호동 8,840,000원

- **완납:** 강인희(리드비나), 김선자(벨라멧다), 김창희(요셉), 남강희(후제요한), 변효순(안젤라), 손경영(안드레아), 신영미(카타리나), 신영숙(안젤라), 이수안(스텔라), 전영숙(마리아), 정중현(토마스), 최종엽(테레사), 최환진, 하필선(율리안나)
- **분납:** 권택성(스테파노), 김근소(하상바오로), 김완희(가브리엘), 박형우(삼손), 박희정(바오로), 윤석고(안셀모), 정재규(요한)

■ 삼계 2,380,000원

- **분납:** 강장희(마르코), 김병구(요셉), 김수미(크리스티나), 김용순(수산나), 김희정(미카엘라), 박재순(글라라), 양성환(라우렌시오), 이지혜(임마꿀랏다), 이진자(보나), 정연석(로마노), 허미영(카타리나), 허성윤(갈리스도)
- **추가:** 이옥자(안나)

■ 삼천포 3,870,000원

- 완납: 김광준(안나), 김숙영(아가페), 문성윤(미카엘), 소순덕(엘리사벳), 이수남(세실리아), 이영남(루카), 장병민(알폰소)
- 분납: 강갑순(올리아), 강현(요셉), 김수아(데레사), 김혜림(헬레나), 정재웅(요셉)

■ 상남동 2,847,000원

- 완납: 김기봉(스텔라), 김미라(마리아), 박상욱(안토니오), 안세환(요한)
- 분납: 김수학(비오), 박신석(바오로), 박희조(요셉), 안병영(라파엘), 윤필레(데레사), 이상욱(토마스), 장자림(마리스텔라), 장혜옥(루시아), 황서분(마리아)

■ 상평동 700,000원

- 완납: 이은영(베네딕도), 조재성(라파엘)

■ 수산 3,600,000원

- 완납: 임연길(콜리아노)
- 분납: 양기덕(빈첸시오), 우정웅(발라바), 유희남(요한), 이경호(베드로), 이재구(베드로), 이지명(루치아), 임영숙(로사), 차용인(요한)

■ 신안동 7,196,090원

- 완납: 강성민(야고보), 박영조(가브리엘), 양은지(베네딕도), 조진철(스테파노)
- 분납: 강점길(알베르토), 김영희(수산나), 김종록(대견안드레아), 김지인(프란치스코), 김호준(안드레아), 류승우(베드로), 박미진(소피아), 박영애(소화데레사), 봉재환(즈가리아), 서은형(데레사), 이시은(수산나), 이정일(빈첸시오), 이화영(수산나), 임길달(카타리나)
- 추가: 김영애(수산나), 김천수(돈보스코), 박인영(마르티노), 서은형(데레사), 이소담(아네스), 이승엽(야고보), 이인우(토비아), 이원영(사무엘), 윤선호(루카), 정가영(이사벨라), 정윤교(시몬), 최현지(글라라)

■ 양덕동 11,000,000원

- 완납: 강영재, 강일홍(마멜도), 김경진(아네스), 김길화(아우구스티노), 박홍식(하상바오로), 성옥주(데레사), 윤종수(마르코), 이승기(안드레아), 임혜진(마리아), 조현석(T.아퀴나스), 최향란(올리아나)
- 분납: 김군자(스텔라), 김기덕(안토니오), 김무순(도미니카), 김춘자(헬레나), 류미지(모니카), 문강진(프란치

스코), 심외숙(마리아), 윤원진(안젤라), 이영훈(안드레아), 이정희(체칠리아), 임혜진(마리아), 최춘일(치릴로), 황선미(로사), 황정현(마리아), 익명 2명

■ 여좌동 3,210,000원

- 완납: 박성옥(루시아), 박재진(필립보네리), 박주영(루치오), 임성도(마르티노), 최용웅(요셉), 허종실(가예파노)

■ 옥포 9,375,000원

- 완납: 권태민(미카엘), 김소영(마리아미카엘라), 김철석(스테파노), 나맹순(글로리아), 두병윤(스테파노), 박희석(베드로), 서영태(미카엘), 이준호(베드로), 정병채(아모스), 주정연(베드로), 최병철(스테파노), 한경애(로사리아), 홍영희(루시아), 구방현(프란치스코), 유둘선(루시아), 윤계선(데레사), 이재진(가브리엘), 한상연(헬레나), 파랑포 안나의 집
- 분납: 강현용(아브라함), 강홍섭(스테파노), 김계순(모니카), 김옥란(비비아나), 김정순(아네스), 남성미(가타리나), 이준규(요셉), 장수선(마리아막달레나), 조승현(야고보), 진진옥(요한), 공성희(세라피나), 윤숙란(요세피나), 이진미(루시아), 전대영(베드로), 정유섭(토마스), 천혜진(마리아)

■ 완월동 25,000,000원

- 완납: 강말순(헬레나), 강현수(헬레나), 김미경(올리아), 김선미(아네스), 김재길(프란치스코), 이영란(요안나), 이정현(안셀모), 이지숙(아가다), 최경림(안젤라), 최광이(안젤라), 황옥자(수산나)
- 분납: 박선애(대데레사), 이강문(요셉), 이우정(크리스티나), 조덕제(글레멘스), 최영민(요셉)

■ 용원 1,510,000원

- 완납: 이종현(안드레아), 장재욱(요한)
- 분납: 김민정

■ 용잠 5,450,000원

- 완납: 김도영(크리스토폴), 김미경(사비나), 김성명(야고보), 김정옥(프란체스카), 김종수(베네딕도), 박성진(요한보스코), 박재상(마태오), 서영숙(올리아), 옥승혜(레지나), 이미정(미카엘라), 최현자(안젤라)
- 분납: 이오연(라우렌시오), 전상현(베네딕도), 홍창근(토마스베게트), 황희순(다시아나)

■ 월영 7,470,000원

- 완납: 강성수(토마스 아퀴나스), 권미화(크리스티나), 김교원(에두알도), 김민철(안토니오), 김보옥(레지나), 김초혜(로사), 남자경(에밀리아), 문남돌(안젤라), 박성혜(레베카), 신경훈(마리아), 오정희(푸블리아), 이민자(레지나), 이정숙(루시아), 장영애(카타리나)
- 분납: 강나리(아니시아), 강또금(레지나), 강승엽(여호수아), 강태규(미카엘), 강화정(데레사), 강희숙(스텔라), 광철윤(요셉), 권기호(루시아), 권상태(비오), 김계수(즈가리아), 김근규(프란치스코), 김묘진(스텔라), 김문환(리노), 김민기(루치오), 김현숙(세실리아), 김현주(크리스티나), 김희자(안나), 노수영(모니카), 민현주(헬레나), 박경희(로사), 박분선(카타리나), 박희정(엘리사벳), 송춘기(발비나), 안은주(헬레나), 이정숙(크리스티나), 이성열(도미니코), 이승준(그레고리오), 이승진(그레고리오), 이영희(베르디아나), 장용걸(알베르토), 장은실(벨라데타), 정마리아(마리아), 정순덕(모니카), 조성진(아드리아노), 조순옥(엘리사벳), 조현철(바오로), 최성황(펠릭스), 최영수(안드레아), 최옥환(루치오), 한동은(스테파노), 허성배(프란치스코), 홍숙경(사비나), 황주연(아모스), (주)민들레 생각
- 추가: 김옥선(소피아)

■ 의령 1,270,000원

- 완납: 김희연(안젤라), 박미영(데클라), 심말순(아네스), 왕순영(안젤라), 유영점(헬레나), 이용효(가브리엘), 이현(그라시아노), 조형래(요한)
- 분납: 강용전(가스발), 강용전(가스발), 김도연(바오로), 김동원(엠마누엘), 김희주(세라피나), 박미영(데클라), 오경주(라파엘라), 오진선(베를린다), 윤성훈(베드로), 정동영(가브리엘), 황준석(미카엘)

■ 장등 530,000원

- 분납: 노종수(요셉), 이수일(비리버)

■ 장재동 3,640,000원

- 완납: 강인애(베로니카), 광정숙(세실리아), 김판식(헬레나), 박민규(프란치스코)
- 분납: 장경조(베네딕도)

■ 장평 4,540,190원

- 완납: 강성만(마르코), 류이도(마지아), 이광희(스테파노), 장한홍(알베르토), 정호성(아네스), 조용현(모세)
- 분납: 김재욱(야고보), 김점숙(마리아), 김태한(가밀로), 배현근(바오로), 변영신(요셉), 서진원(바오로), 유현문(마태오), 전미영(젼마), 정연환(안토니오), 최선화(비비안나)
- 추가: 김혜정(베로니카), 제경옥(안토니오), 조익석(요한)

■ 중동 5,395,000원

- 완납: 김유형(세실리아), 김차임(아나니아), 박영희(율리안나), 오병진(필립보), 유미란, 윤신혜(마리안나), 이화섭(요셉), 이효원(도미니코), 조금연(세실리아), 천경순(요셉파나)
- 분납: 강성란(수산나), 강정임(막달레나), 고귀임(제노베파), 고영호(필립보네리), 김돌순(비아), 김몽상(마태오), 박상현(베드로), 송수남(효임골롬바), 윤서현(요아킴), 이경애(가브리엘라), 전재욱(안젤로), 하정순(M.막달레나)

■ 중앙동 7,030,000원

- 완납: 김형규(가오로), 박성욱(루도비코), 백정길(시몬), 오경숙(체칠리아), 윤소라(리사), 이동환(세례자요한), 장홍자(모니카), 정미정(미카엘라), 정지승(오틸리아), 주민석(스테파노), 최성준(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최희조(올리바), 한상기(라우렌시오)
- 분납: 문권우(마르코), 문주영(사라), 백승국(프란치스코), 손창일(프란치스코), 안효주(엘리사벳), 이자형(다미아노), 이창호(시몬)
- 추가: 김성욱(필립보), 신순희(모니카)

■ 지세포 1,700,000원

- 완납: 강명옥(미리암), 김윤정(요안나)
- 분납: 강병철(다두), 김영숙(리디아), 손정의(마리아 호세파), 양재식(파스칼), 이창근(안드레아), 임종훈(요셉)
- 추가: 김형남(사도요한)

■ 진동 6,820,000원

- 완납: 권영주(스테파노), 김상문(토마스), 변다경(프란치스코), 이명희(마리아), 정홍근(세바스티아노)
- 분납: 김말순(안젤라), 신혜은(글로리아), 안병한(가롤로), 전점순(나타리나)
- 추가: 이명희(마리아)

■ 창녕 360,000원

- 분납: 김호빈(알폰소), 이근우(안드레아), 이지민(카타리나), 이창혁(남종삼 요한)

■ 칠암동 20,776,560원

- 완납: 강숙귀(세레나), 강신재(대건안드레아), 강정기, 권하영(스텔라), 김경아(제노비아), 김국진(젤마노), 김명숙(베로니카), 김민영(엘리사), 김병택(스테파노), 김상일(요한), 김정자(루치아), 김지훈(베드로), 김창운(마태오), 김춘문(실비아), 노은비(프란치스카), 노형택, 도점순(수산나), 도창일(치백요셉), 박경자(올리아나), 박근식(대건안드레아), 박범현(요한), 박숙자(글라라), 박자경(젬마), 박종태(펠릭스), 박진경, 배은형(토마스), 서혜자(아네스), 신연주(클라우디아), 양윤석(루카), 오진화(이나시아), 이미숙(마리아), 이상민, 이상우(콜롬바노), 이상운(브루노), 이순자(다시아나), 이영선(수산나), 이예자(갈멜라), 이창희(루치아), 전경하(요셉), 전동준(바오로), 전태유(안토니오), 정은영(안나), 정평화(펠릭스), 조명제(베드로), 차숙자(아네스), 최재훈(요한), 최희숙(엘리사벳), 하선영(안젤라), 한인중(베드로)

■ 칠원 4,600,000원

- 완납: 박경순(수산나), 주원식(베드로)
- 분납: 신승기(라파엘)

■ 팔용동 2,170,000원

- 완납: 김동인(야고보), 신선희(수산나), 여태열(안드레아), 유숙희(테레사), 조은영(골롬바)
- 분납: 김서용(마태오), 김정언(젬마), 박지원(제노베파), 백금선(아나스타시아), 오화선(요안나), 허원(요한)

■ 평거동 8,930,000원

- 완납: 강경태(프란치스코), 김명숙(헬레나), 박쌍철(안젤로), 서혜자(도미니카), 위문수(미카엘), 이성준(T.아퀴나스), 이연효(요한), 이정기(델피노), 전영화(말셀리나), 하태근(프란치스코)
- 분납: 김윤분(아네스)
- 추가: 권해주(토마), 김연희(아가다), 위문수(마카엘)

■ 하대동 890,000원

- 완납: 강길중(요한), 김환영(안토니오), 장숙련(올리안나), 주용태(프란치스코)

- 분납: 강현숙(파비올라), 김덕순(글로리아)

■ 하동 3,770,000원

- 완납: 김정태(안토니오)
- 분납: 박봉구(베드로), 박술(요셉), 배영애(마리아), 백영희(라파엘라), 선우일권(요셉), 임영옥(올리아나), 임은선(루치아), 하종렬(요한.M.비안네)
- 추가: 전덕진(유스티노), 최문열(가브리엘)

■ 하청 2,735,000원

- 완납: 강문효(스테파노), 박보배(유스띠나), 여수정(소피아), 윤행자(마리아), 이창우(가롤로 보로메오), 이혜정(루치아)
- 분납: 김혜경(산치아), 윤정옥(엘리사벳)

■ 함안 6,352,000원

- 완납: 고송영(그레고리오), 구미숙(요안나), 김용덕(나자로), 김종숙(베로니카), 배우순(레오), 이희정(루시아)
- 분납: 김홍기(안셀모), 박영순(마리아), 안상식(안드레아), 안영란(글라라), 이미호(베네딕토), 정구낙(야고보), 정영봉(레오)
- 추가: 김찬두(루치아노), 이진희(에스텔)

■ 함양 1,490,000원

- 완납: 경안나(안나), 김경효(안드레아), 김복순(세실리아), 정숙자(말다), 한경완(요셉)
- 분납: 김명선(노아), 오준영(요셉), 이정호(가스발)

■ 호계 4,560,000원

- 완납: 김대봉(베드로), 김원열(이나시오), 안재형(시메온), 윤용준(베드로), 이동호(시메온), 이옥련(요셉피나), 이은빈(스텔라), 정경희(스텔라), 정범석(스테파노), 조정자(마리엘라)
- 분납: 조운정(베로니카), 조훈(토마스)

■ 회원동 3,190,000원

- 완납: 권대현(후베르토), 박행자(수산나), 서동일(요한보스코), 석유화(젬마), 정진숙(사비나), 최정한(베드로), 최준태(클레멘스), 탁재형, 함성렬(안셀모)
- 분납: 고경수(레지나), 김천일(베네딕토), 류민주(안나), 변은주(세실리아), 윤희순(요셉피나), 이승희(아네스), 정점옥(베레나), 최서희(프란치스카)
- 추가: 박미실(베로니카), 최규남(베드로)

교구청 신축공사

중앙정원과 화단조성

신축공사의 대부분 공정을 완료하고 마산합포구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전 공정의 마무리 작업으로 본관과 사제관과 수녀원에 욕실도기 설치작업을 완료하였고, 사제관 수녀원 복도와 본관벽체에 퍼티작업과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바닥에 비닐계타일을 붙이고 계단에 논슬립 작업을 하였습니다. 각 사무실과 성전과 경당의 인테리어 작업도 마무리 하여 전례가구와 사무가구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 광장에는 성모상 설치를 위해 스



플릿블럭을 쌓고 있으며, 건물 주변 경관을 위해 도로 주변으로 나무를 심고 중앙정원과 앞 광장에 잔디를 깔았습니다. 또한 도로와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작업을 하고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큰 작업들을 마무

리하였기에 1월 초에 사용승인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항상 교구민들의 열정인 기도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사 중에 여러분의 정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제관 주변 나무심기



교구청 전경



성모상 조경블럭쌓기공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대상** 신축기금을 교구청으로 직접 납부한 자
(본당통장으로 납부한 분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
- **발급대상 기간**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금
- **신청마감** 12월 30일(금)
- **방법** 납부하신 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추진위 휴대폰(010-2741-7121)으로 문자발송
- **문의**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1) 전화: 010-2741-7121, 249-7121(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2) 이메일: masansamu1@naver.com
3) 카카오톡 채널: '마산교구청 신축' 검색

교구청 기능직 직원 추가 모집

새 교구청 사제관에서 일할 주방근무자(조리 및 청소업무)를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조리원과 환경미화원 0 명
- **특이사항** :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주임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자격증사본 각 1통
- **접수마감** : 2023년 1월 2일(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
(☎249-7016~17)
- **면접일자** :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